

김하성의 자신감 “나를 못 믿었다면 도전도 안했을 거예요”



김하성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 소식을 말했다.

“저를 못 믿었다면 메이저리그에 도전도 안했을 겁니다.”
 ‘꿈의 무대’로 향하는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포부를 밝혔다.
 김하성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입단 소식을 말했다.

“꿈꿔왔던 무대 좋은 조건에 입단하게 돼 기대”
 “좋은 선수들과 호흡 맞춘다면 배울 것도 많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꿈꿔왔던 무대고, 좋은 조건에 입단하게 돼 기대된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샌디에이고 합류 소식을 밝혔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김하성은 지난달 1일 샌디에이고와 계약기간 4+1년 최대 3900만 달러의 조건에 계약 완료했다. 4년간 2800만 달러를 받고 타석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4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4년 후 2025년 샌디에이고 구단과 김하성이 상호 옵션을 행사하면

계약 규모는 3900만 달러로 올라간다.
 샌디에이고는 내야가 탄탄한 팀이다.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3루수 매니 마차도 등 김하성이 익숙한 자리에 이미 주인들이 있다. 샌디에이고에 합류하는 김하성은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김하성은 “솔직히 (계약 전) 그 부분이 걸리긴 했다”며 “프로에서 유격수와 3루를 병행했는데 2루수로 바꿔 경쟁해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러나 곧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하성은 “어느 팀을 가든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지 않나. 좋은 선수층을 갖고 있는 팀에서 뛰고 싶었다. 좋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면 배울 것도 많다. 젊기 때문에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게 불안하고, 나를 못 믿었다면 메이저리그에 도전도 안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14년 넥센(현 키움) 2차 3라운드로 29순위로 프로에 입단한 김하성은 2년 차인 2015년부터 팀의 주전 유격수를 맡았다. 공격과 수비, 주루를 두루 갖춘 데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도 빅리그 구단의 관심을 끌었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891경기 타율 0.294, 133홈런 575타점 606득점 134도루. 지난 시즌에는 타율 0.306, 30홈런 109타점 111득점 23

도루의 성적을 냈다.
 김하성은 “좋은 구단에 입단해 좋은 감독님, 코치님들을 만났다. (박)병호 형, (강)정호 형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것도 지켜봤는데 영경업 감독님께서 ‘너도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2019 시즌을 잘 치르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빅리그의 꿈을 이룬 김하성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바라본다. “메이저리그란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열심히 살아남아 보겠다”며 눈을 빛냈다.
 김하성은 오는 11일 미국으로 출국, 샌디에이고에서의 첫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뉴스

희망 본 홍명보 감독 “얻은 점 많다”

FIFA 클럽월드컵 5~6위전 1-3패...2연패로 6위 머물러



울산 현대 홍명보 감독은 전패로 끝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다.

울산은 7일 자정(한국시간) 카타르 알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 두하일(카타르)과의 FIFA 클럽월드컵 5-6위전에서 1-3으로 패했다. 지난 4일 티그레스 UANL(멕시코)와의 2라운드에서 1-2로 진 울산은 2연패로 6위에 머물렀다. 김도훈 전 감독에 이어 울산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의 데뷔 첫 승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럼에도 홍 감독은 “얻은 점은 많다”고 했다.

“3주 준비 기간 동안 두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력과 회복, 체력에서 문제를 나타냈다. 오늘은 우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했는데 실점 장면이 좋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경기에 나오고, 선수들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홍 감독은 또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굉장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도 믿고 따라와 준 선수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서 “전체적인 체력 준비와 회복을 이룰 만에 하기는 어려웠다. 훈련량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5-6위전에 나선 울산은 전반 21분 에드밀손 주니어에게 선제골을 내줘 끌려갔다. 짧은 패스를 앞세운 상대 중앙 돌파에 수비진이 맥없이 무너졌다.

울산은 후반 17분 윤빛가람의 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 21분 모하메드 문타리, 후반 37분 알모예즈 알리에게 연속골을 얻어맞고 무너졌다.

홍 감독은 “후반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다. 윤빛가람과 김지현을 미드필드로 내리고, 김인성과 이동준을 최대한 끌어올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방이 압박하지 못하게끔 했다”면서 “하지만 실점 장면이 나오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새 외국인 선수 힌타제어의 활용을 두고는 “경기력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어서 오늘 선발로 출전시켰다. 아직 팀에 합류하지 얼마 되지 않아 팀 동료들과 호흡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컨디션을 점진하고 싶었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선수들과 호흡이나, 전체적으로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울산은 FIFA가 제공하는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울산은 정부와 사전 합의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이고 클럽하우스 내 훈련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홍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은 K리그 개막 전까지 보완해야 된다. 시즌을 치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해야 한다. 이런 훈련을 격리 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트넘 손흥민이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WBA)과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3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후반 13분 팀의 추가골을 넣고 있다. 손흥민은 선제골을 넣은 해리 케인과 함께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으며 리그 13호 골을 기록해 득점 부문 공동 2위에 올랐다.

미소 지은 손흥민 “세계 최고 케인, 그리웠어”

‘단짜’ 해리 케인 복귀에 반색...토트넘 vs 알비온전 후반 13분 추가골까지

약 한 달 만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3호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단짜’ 해리 케인의 복귀에 반색했다.

손흥민은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의 2020-2021 EPL 23라운드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13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2일 리즈 유나이티드전 이후 리그 6경기 만에 터진 리그 13호골

이다. 손흥민은 케인, 도미니 칼버트 르윈(에버턴),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득점 부문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손흥민의 골 침묵은 케인의 복귀와 함께 막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리버풀전에서의 부상으로부터 전열에서 이탈했던 케인은 이날 돌아와 풀타임을 소화했다.

손흥민의 골에 직접 도움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케인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손흥민과 안정적인 호흡을 선보였

다. 후반 9분에는 ‘0’의 균형을 깨는 선제골까지 터뜨렸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케인은 매우 중요한 선수다. 모두 케인이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두 경기 뿐이었지만 케인이 많이 그리웠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는 그의 빠른 발이 돋보였다. 손흥민은 수비수 사이를 뚫고 70m 가량을 달려 골을 이끌어냈다.

손흥민은 “팀 승리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골을 넣을 기회가 온다면 200m도 스프린트 할 수 있다”고 웃었다.

이어 “내가 넣었지만 모든 과정을 루카스 모우라가 만들어줬다. 완벽한 패스를 줬다”고 모우라에게 공을 돌렸다.

3연패에 빠져있던 토트넘은 2-0 승리로 모처럼 승점 3을 챙겼다. 승점 36(10승6무6패)으로 8위가 됐다.

손흥민은 “앞서 몇 경기 결과가 안 좋았다. 이번 경기는 반등의 중요한 기회였다. 팀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승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

황의조, 3경기 만에 시즌 6호골

보르도는 1-2 역전패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의조(보르도)가 3경기 만에 6호골을 터뜨렸지만 웃지 못했다.

황의조는 7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스타드 프랑시스트 블레에서 벌어진 보르도와 2020-2021 리그앙 24라운드에서 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24일 앙제와의 21라운드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 3경기 만에 맞보는 골이다. 시즌 6번째

골이다. 그러나 보르도는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로 역전패했다.

보르도는 0-0으로 팽팽하던 후반 11분 황의조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황의조는 오딘의 패스를 받아 상대 페널티박스로 침투했고, 상대 수비의 실책성 플레이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트로 연결해 보르도의 골네트를 갈랐다. 황의조는 바로 교체됐다.

후반 35분 스티브 무니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5분 뒤에 로맹 브르레에게 역전 결승골을 허용했다.

‘PGA 첫 준우승’ 이경훈 “많은 것 배운 한 주”

“다음기회 꼭 우승하고파”

이경훈(3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승을 아쉽게 놓쳤다.

이경훈은 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TPC스코츠데일(파71)에서 열린 PGA 투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피닉스 오픈(총상금 730만 달러)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적어낸 이경훈은 샌디 슈펠레(미국)와 함께 2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승자인 브룩스 캠퍼(미국)와 격차는 1타에 불과했다.
 나를 내내 우승 경쟁을 펼쳤던 이경

훈은 마지막까지 타이틀에 도전했지만 한 칸 못 다가갔다.

공동 2위는 이경훈의 PGA 투어 입성 최고 성적이다. 기존 기록은 2019년 4월 취리히 클래식에서 기록한 공동 3위다.

이경훈은 “이번 주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첫 날부터 컨디션도 좋고, 아이언, 드라이버, 퍼트 등 모든 것이 잘 됐다. 위기 상황도 잘 막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다. 아쉬움도 남지만, 너무 잘 한 한 주 같아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훈은 “많은 것을 배운 한 주였다. 이렇게 우승에 근접할 것이라



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마지막 날 경기를 하면서 좀 떨리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많이 했다”면서 “다음에도 비

슷한 기회가 온다면 꼭 우승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